

기억의 소거(消去)와 역사인식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소설은 한국에서도 대부분이 번역되었고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아시아 여러 지역은 물론 미국, 러시아, 유럽에서도 다수의 작품이 번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변의 카프카(海辺のカフカ)』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006년 무라카미 하루키는 ‘프란츠 카프카상(Franz Kafka 賞)’을 수상하고, 노벨문학상 후보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해, 제가 근무하는 도쿄 대학(東京大学)을 회의장으로 하여 각국의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 번역자에 의해 심포지엄도 개최되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여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나 경제적으로 정체되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던 일본 사회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은 몇 안 되는 일본의 자부심으로 소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는 일본 문화내셔널리즘의 하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 『무라카미 하루키론- 『해변의 카프카』를 정독한다』(『村上春樹論- 『海辺のカフカ』を精読する』(平凡社新書)를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해변의 카프카』를 <처형소설>로서 철저히 비판적으로 정독하였습니다.

『해변의 카프카』가 프란츠 카프카와 직접 연결되는 것은, 주인공인 카프카 소년이 『유형지(流刑地)에서』라는 카프카의 소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형지에서』는 카프카 소년에게 ‘불가사의한 처형기계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처형기계’는 특수한 인쇄기입니다. 죄인이 된 인간의 신체에 죄상을 인정

한 판결문을 바늘로 새겨 넣고, 죄인은 자기 몸의 상처로 그것을 해독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그 판결의 경중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언어와 폭력, 게다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력이 매개체 없이 결합해버리는 것이 ‘처형기계’인 것입니다. 카프카 소년은 ‘그 복잡하고 목적을 알 수 없는 처형기계는 현실에서 내 주변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다(その複雑で目的のしれない処刑機械は、現実には僕のまわりに実際に存在したのだ)’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소년의 이야기는 이 ‘처형기계’에 대항하는, 혹은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언어와 폭력이 매개체 없이 결합하는 사태로 카프카 소년 주변에 ‘실제로 존재’했던 것은 네 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체험과, 아버지인 무라타 고이치(村田浩一)가 행하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누나와 정을 통한다(父を殺し、母と姉と交わる)’고 하는 오이디푸스 신화와 중복되는 듯한 언어의 주박(呪縛)이었습니다.

카프카 소년은 어머니가 가출할 당시, ‘딱 껴안아 주지조차 않았다. 단 한 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다(しっかりと抱きしめることさえしなかった。ただひときれの言葉さえ残してはくれなかった)’는 기억을 간직한 채, “나는 어머니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것일까?**(僕には母に愛されるだけの資格がなかったのだろうか)”라는 의문에 끊임없이 번뇌해 왔던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Trauma; 정신적 외상)로 인하여, 카프카 소년은 ‘<공허>한 인간(<うつろ>な人間)’이 되고 열다섯 살 생일날 가출을 결행한다는 설정입니다.

『해변의 카프카』이야기의 홀수 장은, 카프카 소년이 가출 후 시코쿠(四国)를 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짝수 장은 전쟁 중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을 잃어버리고, 글자도 읽을 수 없게 되어 버린 상태에서 고양이와 대화할 수 있는 나카타 라는 노인이 주인공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고양이의 심장을 먹는 조니 워커라 불리는 남자를, 나카타가 살해합니다. 조니 워커는 카프카 소년의 아버지 다무라 고이치의 분신적인 존재로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에 피가 묻어있는 사실에 겁을 먹은 카프카 소년은 누나와도 같은 존재인 사쿠라라는 여성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가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상상하고 있던 고무라(甲村) 도서관 관장인 사에

키(佐伯)와도 성적 교섭을 나눕니다. 그 후 사에키는 나카타에게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세 권의 파일(三冊のファイル)’을 태워버릴 것을 부탁하고 숨을 거둡니다. 결론적으로 『해변의 카프카』에서는 ‘처형기계’의 판결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누나를 범한다’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그 원인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으로 규정되며 이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용인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변의 카프카』라는 소설은, 무라타 고이치와 사에키의 죽음과 관계된 나카타를 소설의 종결부에 죽게 함으로써 보기 좋게 ‘처형기계’의 기능을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처형소설>로서의 『해변의 카프카』가 2002년 9월 10일에 발매된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많은 독자가 이 소설을 자신을 <치유(癒し)>해 준 소설로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치유>(=Healing)란 마음의 병,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인 외상(트라우마)에 의해 초래된 것이지만, 이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치유>, <치유되지 않는다(癒されない)>라는 단어는 1990년대 말 이후의 일본사회에서 대중문화를 둘러싼 키워드가 되어 갑니다. 음악은 물론 영화, 회화, 만화, 결국 우상(Idol)이나 애완동물을 분류하는 데에도 <치유계(癒し系)>라는 장르구분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사회 전체에서 상당히 폭넓게 ‘심적 외상 후(後)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이하 PTSD)라는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 <치유>를 갈구하게 된 것입니다.

PTSD는 지진, 홍수, 화재 등의 재해 피해, 강간 등의 범죄 피해, 전쟁 체험이나 전쟁 피해, 혹은 학대 등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거나 자신의 통일성(자존심 등)에 현저하게 상처받았던 체험 후에 발생하는 심리적, 정신적 장애입니다.

일본사회에 입각하여 말하자면, 1995년 1월 17일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과, 3월 15일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가스 테러 사건(地下鉄サリン事件)>이 전 국민적인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형성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1997년 야마이치(山一) 증권이 부정거래 등으로 불량 채권을 끌어안고 이듬해 폐업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은 일제히 위기에

빠져 일본경제는 붕괴상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고용형태가 급속히 변모하는 등 단번에 경쟁과 경제적 격차가 확대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자신이 옴진리교의 ‘지하철 가스 테러 사건’의 피해자들과 행한 인터뷰로 구성된 『언더그라운드(アンダーグラウンド)』를 1997년 3월에, 옴진리교의 신자와 전(前) 신자였던 8명에 대한 인터뷰와 가와이 하야오(河合集雄)와의 대담 두 편을 수록한 『약속된 장소에서(約束された場所で)』를 1998년 11월에 간행하였습니다. 이 때 저는 그때까지 현실 사회나 역사적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보였던 한 작가가 시대의 위기와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태엽감는 새 연대기(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 3부작(1995년에 완결) 이후, 7년 만에 장편소설로 판매되었던 『해변의 카프카』는 저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변의 카프카』라는 소설과 그 수용방법 속에, 일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회적으로 대중화된 무의식의 욕망과 작가 한 사람의 문학표현이 결합된 극히 위험한 전향(轉向)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변의 카프카』 간행이,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동시다발 테러 사건’ 발생 1주년 되는 하루 전날이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프간 공격을 비롯한 부시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했던 국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PTSD 상태가 퍼져갔던 것입니다. 부와 군사력을 독점해 온 지역에 대해 궁지에 몰린 측이 행사한 노골적인 폭력과 그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는 폭력의 연쇄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와 폭력을 독점한 국가권력 하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화된 PTSD 상황이 형성된 것은 2000년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변의 카프카』가 <치유>의 소설로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시장이 만들어지던 와중에 이 소설의 마케팅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PTSD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신적 외상 체험이 플래시백(flashback)되고, 꿈이나 환각과 같은 형태로 반복 체험되는 증상. 마음의 상처가 된 체험을 상기할 수 없게 되거나, 흥미나 관심이 없어져 주위의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지닐 수 없게 되는 증상. 잠을 잘 수 없고 불안하며 쉽게 놀라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초조함을 느끼는 증상 등입니다. 『해변의 카프카』가 일본사

회에 있어서 <치유>의 소설로 받아들여진 것은 어떤 치료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PTSD 치료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요법이 있는데, 이는 정신적 외상 체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테라피스트(치료사)의 손가락을 따라 좌우로 안구운동을 하면 그 이미지가 단기간에 사라지고, 자신의 통일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변의 카프카』는 이 치료법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정신분석자인 사이토 다마키(齋藤環)는, 1990년대 무라카미 하루키가 반복하여 묘사한 특이한 모티브가 <트라우마와 해리(解離)>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리>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시간적·공간적인 연속성을 잃는 것’이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마음의 한 부분을 짝 도려내어 구석으로 밀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리>의 예로써 <해리성 건망증>이 있습니다. 소위 기억상실 증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억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잃어버리는 증상입니다.

<처형소설>로서의 『해변의 카프카』에서 무라타 고이치와 사에키의 처형 집행인 역할을 담당하는 나카타는 ‘일본이 큰 전쟁을 치르던 무렵’의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렸습니다. 나카타는 등장인물 가운데 단 한 사람, ‘일본이 큰 전쟁을 하던 무렵’을 살았던 노인입니다. 세대적으로는 전시 중의 일본과 전후의 일본을 잇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기억은 나카타로부터 소설의 설정상 소거돼 버리고만 것입니다.

나카타에게 ‘해리성 건망증’의 증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언뜻 보면 순수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설 속에서 나카타의 <해리성 건망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자리매김된 오카모치 세쓰코(岡持節子)라는 여교사의 설정입니다. 1944년 11월 7일 야외수업에서 오카모치 선생이 나카타 소년을 때린 것이 그의 실신과 그에 따른 기억상실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패전 후 점령기에 미군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정되었고 그 내용이 짝수 장의 첫 장에 등장하여, 소위 나카타 이야기의 틀이 되고 극히 정신분석적인 서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1946년에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를 담당한 정신의학자에게, 오카모치 선생은 28년 후에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속에서 오카모치 선생은 자신의 폭력이 나카타 소년에게 결정적인 정신적 외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필리핀에서 전사(フィリピンで戦死)’했던 것을 나카타 소년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보복, 즉 형벌(刑)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해변의 카프카』라는 소설 속에 잠시 개시되는 역사적인 사건, 일찍이 일본이 행했던 ‘큰 전쟁’을 둘러싼 기억을 상기시키는 ‘1944년 11월 7일’과 ‘필리핀에서 전사’라는 단어를 결합했을 때 일본사회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중대한 문제가 부상합니다.

일본의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레이테 전기(レイテ戦記)』(中央公論社, 1971)를 읽은 사람이라면, ‘1944년 11월 7일’이 필리핀 전투를 둘러싸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이라는 역사인식을 갖게 됩니다. 일본에서 본토결전의 대역(代役)으로, 대원수인 쇼와 천황(昭和天皇) 히로히토 아래에 설치된 최고통수기관인 다이혼에이(大本營)가 레이테 결전을 결정했기 때문에 ‘많은 장병을 무모하게 죽게 한다(多くの将兵を無駄死させる)’는 현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종판단이 내려진 것이 바로 ‘1944년 11월 7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인식을 가진 독자라면 오카모치 선생의 남편이 죽은 원인은 다이혼에이가 전사의 시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 죽음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쇼와 천황 히로히토에게 있다고 소설 설정에 대해 반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카모치 선생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현대의 『해변의 카프카』를 읽는 다수의 독자가 오오카 쇼헤이의 『레이테 전기』도 같이 읽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오카 쇼헤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현재의 출판 시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가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테 전기』가 간행되었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우리 세대에게는 이 <전기(戦記)>를 읽지 않고는, 일찍이 일본이 행했던 <큰 전쟁>을 사실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대일본제국이라는 국가와 그 상비군을 둘러싼 책임 문제를 생각할 수도 없다는 공통된 감각이 존재합니다.

또한 『레이테 전기』가 제시한 ‘큰 전쟁’의 극히 일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기술자의 판단에 의거한 책임 소재를 명시하는 방법은,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이라는 폭력의 본질을 독자에게 생각하게 하고, 그로 인해 인간에게 폭력문제를 근저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레이테 전기』는 그 간행 전년도에 일어났던 자위대에게 쿠데타를 호소한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할복자살과 이듬해 ‘연합적군’에 의한 <아사마 산(淺間山) 산장 사건>이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폭력형태에 대해 우리 세대가 두 사건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사상적인 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레이테 전기』가 명확히 밝힌 대일본제국 상비군의 무책임한 체제 및 천황제와의 관계, 그리고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는 전후 일본사회에서 근원적인 역사인식과 사상을 둘러싼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한다면 오카모치 선생의 편지글이 『해변의 카프카』라는 소설속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나카타 군을 때린 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그 책임을 한 몸에 짊어지고 필리핀 전투에서 남편이 죽게 된 것이 그 책임에 대한 형벌인 양 의미를 부여하는 오카모치 선생의 편지는, 결과적으로 <큰 전쟁> 말기의 많은 장병의 ‘무모한 죽음’ 과 많은 비전투원의 ‘무모한 죽음’의 최고책임자 쇼와 천황 히로히토의 전쟁 책임과 전후책임을 면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 전투뿐만 아니라, 일찍이 대일본제국과 그 상비군이 행했던 식민지주의적, 제국주의적인 침략전쟁을 둘러싼 기억을 환기하는 에피소드는 『해변의 카프카』라는 소설 전체에 수많은 깔려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공유된 사회적인 집합의 기억에 작용하여, 그 기억을 잠시나마 독자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이 모든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 용인하고 상기된 기억 그 자체를 소거시킨다는 점에 소설 『해변의 카프카』라는 텍스트의 기본 운동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치유’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전쟁의 기억에 대한 이러한 기억의 소거는 동시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둘러싼 기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누나와 정을 통한다’는 다무라 고이치가 카프카 소년에게 건 오이디푸스적 속박은 나카타와의 사이에 분담되어 실천됩니다. 나카타가 맡은 일은 조니 워커 살해, 즉 다무라 고이치 살해라는 직접적인 폭력에

의한 아버지 살인입니다. 카프카 소년이 맡은 일은 ‘어머니와 누나와 정을 통한 다’는 근친상간의 금기를 범하는 것입니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오이디푸스 신화에는 나오지 않는 ‘누나와 정을 통한 다’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해변의 카프카』에서는 ‘강간’으로 자리매김 되고, 또한 근대 국민국가가 수행하는 제국주의 전쟁의 기억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카프카 소년에게 누나와 같은 존재는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무라 도서관에서 일하는 오시마(大島)이며, 다른 한 사람은 앞서 언급했던 사쿠라입니다. 카프카 소년이 의사모(擬似母)로 상징한 사에키와 성적 교섭을 행한 후, 다무라 고이치 살해를 둘러싸고 카프카 소년에게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됩니다. 오시마는 카프카 소년을 숲 속의 오두막에 숨깁니다. 그 오두막에서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에 관한 서적을 읽고 있을 때, 카프카 소년은 오시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그 후 꿈 속에서 사쿠라와 성적 교섭을 합니다. 꿈 속에서 사쿠라로부터 “나를 강간하고 있는 거야(私をレイプしているの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카프카 소년은 성 교섭을 강행하고 결국 ‘사정(射精)’에 이릅니다. 이 순간, 그때까지 카프카 소년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버지 살해’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해변의 카프카』라는 소설에는 근대 국민국가가 수행했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과 성적 욕망에 기초한 <강간>, 그리고 <아버지 살해>가 매개체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후 카프카 소년은, 오시마가 금지한 숲 속으로의 여행에 나서고, 오시마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 숲으로 도망갔다고 말한 옛 일본군 병사와 만나게 됩니다. ‘나폴레옹 전쟁’과 ‘일본군 병사들이 싸워야만 했던 전쟁’은 근대 국민국가 성립 후 국민개병제(징병제)에 의해 국민군이 수행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과 누나 같은 존재에 대한 ‘강간’이 더욱 인접되어 있는 것이, 『해변의 카프카』라는 텍스트의 운동인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텍스트가 2002년 이후의 일본 독자에게 <치유>를 가져다준 것일까요? 그것은 역시 전쟁이나 ‘강간’의 기억을 잠시 동안 상기하고, 그것을 모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 인정하며 소거해 간다는 텍스트 운동에 의해 실현된 것입니다.

1990년대 전체에 걸쳐 일본에서는 전시 하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 집단

<강간>, 즉 <중군위안부>라는 성노예 문제가 사회를 이분화시키는 형태로 격렬하게 논의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중군위안부>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국에서 격렬한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 채택률은 거의 0퍼센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서 <중군위안부>를 둘러싼 기술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중군위안부> 문제는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의 정당화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여성들의 목숨을 건 기억에 의존한 증언을 통해 역사인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동시에 전쟁이라는 국가가 수행한 폭력 가운데 편입된 병사, 즉 사람을 죽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남자들이 얼마나 비인간화되는가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중군위안부> 문제라는 과거의 전쟁범죄를 둘러싼 여성들의 고발의 기억은 현시점에서 발생한 코소보 분쟁의 <민족정화>라는 집단적 <강간>의 고발과 결부되어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 의한 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노예가 되었던 할머니들의 애절한 기억의 증언에 의해, 국가에 의해 수행된 전쟁이라는 조직적 폭력이 근원적인 인권과괴였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 가문이 전쟁범죄인과 마주하는 자민당 2세, 3세 의원들이 <중군위안부> 문제를 없었던 일로 하고자 국민운동을 조직하고, 19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용의자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외조부인 아베 신조(安部普三) 정권 하에서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와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하였던 1995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의 담화를 부정하는 책동이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노 담화 직후, 자민당의 단독정권이 붕괴되고, 야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국가가 수행한 침략전쟁 하의 조직적 <강간>의 기억을 잠시 동안 상기하고, 다음 순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해변의 카프카』의 소설 텍스트 운동은 ‘중군위안부’ 문제를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기억을 지움으로써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 역사적

인 사실을 그 전체상으로 언어화하고 그 언어화된 기억에 대하여 반성하며, 또한 원인을 명확히 하여 책임의 소재를 밝혀내 책임질 때, 비로소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납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설이라는 장르가 근대 인간사회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온 것이 아닐까요? 때문에 저는 『해변의 카프카』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